

## 평단(評壇) 전망(展望)

나는 상정의 화원에 노는 한 마리 나비고자 한다. 아폴로의 아이들이 가까스로 가꾸어 형형색색으로 곱게 피워 놓은 꽃송이를 찾아 그 미에 흠뻑 취하면 족하다. 그러나 그때의 꿈이 한껏 아름다웠을 때에는 사라지기 쉬운 그 꿈을 말의 실마리로 엮어 놓으려는 안타까운 욕망을 가진다. 그리하여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 소위 나의 비평이다. 따라서 나는 작가를 지도한다든가 창작방법을 가르쳐 준다든가 하는 엄청난 생각은 감히 일으키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평의 기준이니 방법이니 하는 것도 또한 나에게서는 소용되지 않는다. 한 작품에서 얻은 인상의 기록이 작가에게 작품제작의 방법을 가르칠 도리가 없는 것이며, 그 인상만을 기록하여 놓으려는 데 기준이니 방법이니 하는 것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인상에 충실하려는 노력이, 인상을 보편성에까지 승화시키려는 노력이, 그리고 그 인상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려는 노력이 있다.

겨울의 먼이 흐리거나 거칠거나 할 때에 꽃은 결코 그 본래의 아름다운 태도로 그 속에 영상되지 못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둔하거나 편협한 개인적 기호로 비틀어져 있을 때, 작품은 결코 그 온전한 양상을 그대로 그 속에 비추어 주지 않는다. 따라서 그러한 마음

이 작품에서 맞는 인상이란 대단히 왜곡된 것일 것이요, 산만한 것일 것이다. 내가 나의 비평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실은 이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작품에서 오는 인상을 그 온전한 상태에서 조금도 흘림 없이 받아들이기 위하여 작품을 대할 때에 마음의 거울을 흐리지 않게 하고 그 포즈를 바르게 가지고자 내 땀에는 노력하느라고 한다. 이 노력이 곧 나의 비평가적 수양이다. 그런데 이 수양은 나에게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확호한 두 가지 신념 밑에서 행하여진다. 비평에 있어서 내가 의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자신의 인상뿐이라는 것과, 내 자신의 인상에 철저히 할 때, 마치 우물을 깊이 파들어 가면 반드시 바위 바닥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상의 보편성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것과, 그리하여 이 신념에서 나의 감성을 훈련하는 방도도 발견된다.

결작의 가장 큰 특질의 하나는 그것이 사람에게 강렬하고 심각한 인상을 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작품을 읽으면 그것이 곧 우리의 감성에 운동이 된다. 그리고 결작의 또 한 특질은 어느 정도의 훈련이 있는 감성에게는 공통된 성질의 인상을 안겨 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작품을 읽으면 그것에서 오는 인상에 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성이 계발되어 간다. 다시 말하면 위대한 작품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감성은 그 기능과 진폭에 있어서 완전한 상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며,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감성은 한 작품에서 오는 인상을 그 가장 심각하고 보편적인 양상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감성을 훈련하기 위하여 오직 고급의 위대한 작품을 많이 읽도록 애를 쓸 뿐이다. 그러나 나의 이런 비평가적 수련은 아직도 부족하기 짝이 없어 작품이나 작가의 면모를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판하지 않는다. 그것은 비평가의 수련의 길은 그 길 밖에는 없고, 또 그 길을 꾸준히 밟을 때 다만 한 걸음씩이라도 완전한 비

평가(그는 신이다)에 가까이 가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아직도 비평의 붓을 놓지 못하는 실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비평의 붓을 쥐지 못하는 데는 또 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비평을 쓰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창작은 작가가 생활에서 얻은 인상을 정착시키려는 데서 산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작가가 생활 속에서 어떠한 강렬하고 심각한 인상을 얻을 때 사라지기 쉬운 그 인상을 정착하기 위하여 그 인상을 낳은 생활은 그대로 그려놓은 것이 곧 시나 소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시나 소설 속에 담긴 생활은 작가가 정착시키려는 인상을 낳은 그것만의 생활이므로, 한 작품 속의 생활은 그 작가가 생활에서 인상을 받아들이는 포즈와 형식과 양에 의하여 결정된 생활이다. 그러므로 그 작품 속의 생활은 결국 그 작가가 새로이 짜낸 생활로 작가가 작품제작에서 느끼는 창조 기쁨은 실로 이런 새 생활을 짜내는 데서 오는 기쁨인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나는 어떤 작품에서 얻은 인상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비평을 쓴다. 그런데 나의 인상은 작품 속의 생활에서 오는 것이므로 나는 마치 작가가 현실생활 속에서 얻은 인상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그 인상을 낳아 준 그만큼의 현실의 생활을 기록하듯이, 나는 작품에서 얻은 인상을 정착하기 위하여 나에게 그 인상을 낳아 준 작품 속에 그만큼의 생활을 기록한다. 그러므로 나의 비평이 창작과 다른 점은 창작이 현실생활의 기록인데 대하여 나의 비평이 작품 속의 생활인데 있다. 그리고 어떠한 작품 속의 생활은 현실생활을 받아들이는 그 작가의 감성의 포즈와 형식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작가가 새로이 창조한 생활인 것과 마찬가지로 나의 비평 속의 생활도 작품 속의 생활을 받아들이는, 나의 감성의 포즈와 형식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새로이 구성한 생활이다. 이에 비평을 쓸 때에

나는 작가가 창작을 할 때에 느끼는 것과 비슷한 창작의 기쁨을 느낀다. 따라서 외람하나마 나는 나의 비평이 창작으로서 감상되기를 원하여 마지않는다.

비평에 대한 나의 인식과 태도가 위에서 말하여 온 바와 같으므로, 나는 그 본래의 의미에 있어서의 비평이란 작품론이나 작가론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또 작품론이나 작가론 이외에 문학현상과 문학행동에 대한 논평을 쓴다. 그러나 그런 평론을 쓰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문학현상이나 행동에 대한 원리를 탐구하려는 목적에서이기도 하나, 그보다도 그 원리를 탐구함으로써 문학작품에 대하는 나의 포즈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그런 문학원리적 논평은 나에게 있어서는 한 자기 반성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그러면 너는 비평이나 평론의 지도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 나는 비평이나 평론이 작가에게 대한 지도성이란 것을 그렇게 크게 믿지 못한다. 그것은 작가는 언제나 제 독특한 포즈와 방법으로 생활을 보고 기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평이나 평론이 지도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아무런 효용성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비평가가 진정한 작가적 기쁨을 가지고 비평을 썼을 때에 독자는 그 속에서 새로운 생활을 보는 기쁨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그 비평의 대상된 작품을 쓴 작가는 일반 독자가 맛보는 그런 기쁨을 맛보는 외에 자기가 창조한 생활이 가장 감수성 있고 진폭이 넓은 한 감성에 의하여 어떻게 향수되었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작가가 비평가의 마음의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작품의 얼굴을 볼 때에 어떠한 반성이 있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또 그 반성은 그의 생활을 보는 포즈와 생활에서 받는 인상을 정착시키는 수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평가의 문학현상이나 행동에 대한 원리의 탐구를 위한 논평도 그것이 진지한 것일 때에 일반 독자나 작가에게 그저 읽혀지는 그것만으로 그치지 않는 것을 것이다. 그것은 비평가의 문학현상이나 행동에 대한 원리의 탐구가 일반 독자에게 문학작품 속에서 생활을 보고, 그것을 향수하는 길을 지시하여 줄 수 있는 것이요, 작가에게 생활을 보고 또 그것을 형상화하는 포즈와 방법을 수립하는 데에 대한 어떤 암시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비평의 효용이란 이상과 같이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비평가가 그의 비평이나 평론으로 하여금 어떠한 효용을 발생케 하려면 작가의 창작방법에 개입하거나 어떤 연역적인 원리로 작가의 작품활동을 속박하지 말고, 언제나 작품이나 문학적 현상에 즉하여 그것에서 어떤 원리를 추출하여 다만 작가의 참고에 공(供)하는 데 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나는 비평의 효과를 의식하면 할수록 문학작품이나 문학적 현상에 귀납하여 얻은 문학적 규범 이외에는 작가에게 제공—그것도 다만 참고로밖에—하지 못한다. 이것으로써 나를 비겁하다고 해도 좋다. 이런 것이 비겁하다면 비평가는 비겁하면 할수록 소위 비평가의 지도성을 획득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편집 선생의 분부대로 신년도의 평론계를 전망하여 몇 마디 하기로 한다. 하지만 신년도의 평론계도 금년도의 그것과 별다른 차위가 없을 것이란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그러나 신년도도 금년도에 별다른 차위가 없으리라는 말은, 신년도에도 금년도에 평론계에서 논의되었던 것과 똑같은 문제들이 논의되리라는 말은 아니다. 그보다도 신년도에는 금년도에 논의되지 않았던 많은 새로운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마치 금년도에 작년도에 예상되지 않았던 많은 새로운 문제가 논의되었고, 작년도에도 또 재작년도에 예상 못했던 많은 새로운 문제가 논의되었고, 또 그 전년도에도 그 전년도에도 그랬던 것과 같이. 이에 앞

서서 신년도에도 금년도와 별다른 차위가 없으리라는 말은, 금년도에 작년도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목이 논의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신년도에도 지금부터 예상할 수 없는 새로운 제목들이 논의되리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매년 새로운 제목이 논의된다는 것은 비평단을, 아니 널리 문단을 위하여 기뻐할 사실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문단에서 새로운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늘 따라 기뻐할 수는 없다. 그것은 그 논의의 대부분이 우리 문단의 문학작품이나 문단 시(時) 사실에 그 발생 근거를 두지 못한 것들이요, 또 우리 문단에 발생 근거를 두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논의들이 문단에 일시적 혼조를 일으킬 뿐으로 별다른 문단적 결실을 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신년도에 또 이런 논의들이 성행한다면 요 몇 해를 두고 갈수록 더하여 가는 비평과 창작과의 승리(乘繼)는 그 극에 달하여 작가는 비평가의 언설에 완전히 귀를 막을 것이요, 작가가 그러하면 할수록 비평가는 더욱 고답적으로 작가를 매질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하는 중에 현명한 비평가는 문학과 관련이 없는, 더욱이 우리 문단의 문학적 사실과 관련이 없는 이론으로 작가를 매질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우리 문단의 문학적 사실에 즉하여 그 속에서 논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런 때가 언제올 지 예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런 기운이 신년도에 점점 농후해 가리라는 것은 말할 수가 있다. 이 기운이 양성해감에 따라 작가는 비평가의 언설에 귀를 열게 될 것이요, 따라서 작가와 비평가의 행복한 합작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 행복시대의 저항을 나는 신년도의 평론계를 전망하며 그 소란한 논의를 예상하는 중에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여 둔다.

《조광》, 6권 1호, 1940. 1. 1)